< 신행기획 >

㊤ 이 시대의 화두 '실천'

㊦ '포교열정' 은 계속돼야 한다

활동지침 · 지원제도 필요

노인복지시설 화성 자제정사에서 봉사하고 있는 불교대학 졸업생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일부선 대외활동 하려면 주지 · 학장 눈치보기 일쑤

봉사 의무화 · 관련기관과 연결 등 모범사례 배워야

불교대학 재가불자들의 활약이 대단하다. 소규모 신행모임에서 목욕, 장의염불, 복지시설 봉사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영역이 폭넓다. 재가불자 신행패턴을 바꿔놓을 만큼 활동력도 크다.

하지만 이들의 열정적인 신행활동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불교대와 사찰 등의 '무관심' 은 현장포교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재가불자들이 지속적으로 펼치려는 신행의지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H불교대학을 운영하는 모 스님은 "당초 불교대학을 설립한 이유는 사찰 신도회원을 다수 확보해 신도회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였다"며 "아무리 대외사회봉사활동도 좋지만 그래도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사찰 일을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불교대학 재가불자들의 신행의식도 어정쩡하다. 배운 것을 실질적으로 실천으로 옮기는데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 또 대외봉사활동을 계획해도 소속 사찰의 주지나 학장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최근 경북 G불교대학을 졸업한 한 불자는 "졸업 동문들과 발마사지 봉사활동을 계획했었는데, 시큰둥한 학장 스님의 반응에 어쩔 줄 몰랐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로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불교계 재가불자 신행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먼저 소속 사찰과 불교대학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봉사분야별 전문 강사 지원을 비롯한 인적 · 물적 자원 지원과 활동처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또 졸업생들이 자발적인 신행 ·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불교대학의 재가불자 신행활동 권장은 서울 정토불교대학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정토불교대학은 지난 91년 문을 연 이후, '자원봉사' 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교과과정에 규정했다. 2년 과정 동안 학기당 총 16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치게 하고 있다. 봉사기관도 사회단체 길거리 모금, 환경운동 등 다양하게 선정, 활동범위도 넓혔다.

이 대학 성영진 씨(40)는 "처음에는 특별한 사명감 없이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대학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나를 '봉사마니아' 로 만들었다"며 "이제는 대학동문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신명나게 봉사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대구영남불교대학도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신행 ·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다. 현재 이 대학에서는 무의탁 노인돕기, 병원봉사단 활동, 상담전화 운영 등 10가지 정도의 봉사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1가지 이상의 봉사모임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신행공간을 마련해, 조직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이외 전북불교대학은 경전독송회, 문화재 답사회 등의 동아리 활동을, 부산불교교육대학은 군병원, 군부대 법회 지도, 수화반 출신 심여회 등이 청각 장애인법회에서 수화통역을 맡는 등 재가불자들에게 다각적인 활동무대를 제공해주고 있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학장 우학 스님은 "불교대학을 졸업한 불자들의 상당수는 봉사활동과 신행활동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다"며 "일부 사찰과 불교대학 스님들이 불자들의 '포교의지' 를 뒷받침해 이들을 불교발전에 '포교자양분' 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우 · 유철주 기자

"나는 동국 독서퀴즈왕"

동국대 도서관 책읽기 권장 퀴즈대회 열어

1등 경찰행정학과 곽상탄 씨 100만원 받아

"35번째 문제입니다. 불교가 숭상해야할 삼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보는 무엇일까요? 5초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이내 사회자가 다섯을 모두 샜다. 사회자는 흰 칠판을 번쩍 든 두 명의 학생 가운데 한 명의 칠판에 적힌 글자를 읽었다.

"부처님 · 경전 · 스님 네, 불 · 법 · 승 정답입니다."

이렇게 이날의 퀴즈왕 곽상탄(경찰행정학과 3)씨의 우승이 결정됐다. 곧이어 환호와 박수, 함성 속에서 시상식이 이어졌다.

동국대 중앙도서관(관장 최인숙)은 학생들의 책 읽는 습관을 키우고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9월 15일 '제1회 동국 독서퀴즈왕 선발대회' 를 개최했다. 다른 대학에서 시도 하지 않았던 독특한 방법으로 도서관 이용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 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팔정도 불상 앞에 모인 참가자들은 지난 1학기 대출횟수가 많은 다독자들 가운데 50명을 우선 선발했다. 도서관 측이 무려 200만원의 장학금을 상금으로 내걸었을 만큼 경쟁률 또한 만만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모 방송사의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열린 이번 퀴즈대회의 문제는 불교, 인문, 사회, 자연 등 각 분야별 관련 도서의 제목과 내용, 저자 등을 중심으로 출제됐다.

이날 우승자 곽상탄 씨는 총장 장학금 100만원을 상금으로 받았다.

곽 씨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우승까지 하게 되니 너무 기쁩니다. 장학금으로 이번 겨울에 계획했던 유럽 배낭여행을 하고 싶어요"라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날 문제는 의외로 까다로웠다. 실제로 난이도 높은 문제보다는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풀어야만 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가 많아 참가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2등은 북한학과 4학년 이재현 씨, 3등은 문예창작학과 1학년 최윤현 씨가 각각 수상했다. 3등을 차지한 최 씨는 최근 유행하는 '올챙이송' 을 깜찍한 율동과 함께 선보여 참가자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덕분에 패자부활에 성공해 3위 입상한 행운아다.

이날 참가자 가운데는 유일하게 승복을 입고 참가한 학생도 있었다. 불교학과 3학년 보원 스님은 22번 문제에서 아깝게 탈락해 주변을 아쉽게 했다.

대회를 준비한 도서관장 최인숙 교수는 "인터넷 문화에 젖어 책 읽기에 소홀한 요즘 대학생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행사가 됐다"며 "앞으로 매학기 마다 대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책 읽는 시간을 늘려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동국 퀴즈왕 선발대회' 에서 대상을 차지한 곽상탄 씨의 기뻐하는 모습.

한국의 비구니 스님 <23> 수현 스님

새싹불자 양성 20여년 헌신

복지 · 남북교류 등으로 활동영역 확장

결단력 · 단호함 갖춘 '계룡산 호랑이'

"70년대말 미국과 캐나다를 잠시 방문 했을때 모국어를 못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불교도 어린이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훗날 어떤 모습일까 걱정스러웠죠. 그래서 시작한 교육 활동이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안흥사 주지 수현 스님은 어린 새싹들에게 불교적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 불교계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다. 1981년 새마을유아원을 맡으며 불교유아교육에 헌신해 온 스님. 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스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수행자의 향기가 느껴진다. 지금은 상좌 지언 스님(군포 연꽃어린이집 원장)과 지오 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 겸임교수) 등이 스님의 뜻을 받들어 선재동자를 길러내고 있다며 밝게 웃으신다.

1940년 충남 연기에서 태어난 스님은 1955년 법주사 수정암에서 보성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고 같은 해 대원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57년 동학사 강원에 입학해 경학을 공부한 스님은 66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으로부터 비구니계를 받았다. 불교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73년 동국대 불교대학에서 근대식 교육을 받기도 했다.

스님에게는 계룡산 호랑이라는 애칭이 따라다닌다. 어린 시절 호랑이에게 물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개인적인 이력과 함께 74년부터 4년동안 동학사 주지로 재임할 당시 보여준 스님의 결단력과 단호함 때문에 붙혀진 별명 아닌 별명이다. 스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70년대 후반 강원에서 궁여지책으로 약간의 쌀을 양식비로 받았던 것이 스님들이 공부를 포기하게 만든 요인임을 알고 과감히 이를 없애 학인들이 공부에만 전념하게 했고 계룡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지방단체와 협조를 통해 지금의 동학사 사세를 갖추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 실천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전국비구니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동청소년수련관에서 광우 스님을 모시고 8년동안 실무책임자로 불교복지에 첫 발을 디딘 스님은 97년 군포시 매화종합사회복지관을 시로부터 위탁, 지금까지 관장으로 재직하며 지역복지에 헌신해왔다.

올해에는 경기도로부터 'WE START 마을' 로 지정 받는 등 대외적으로 복지관의 모범운영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다. 그외에도 연꽃마을 이사, 군포시 복지협의회장 등 사회복지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3선 종회의원,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등 불교계 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님. 최근에는 남북불교교류에도 관심이 높다. 북한 신계사 복원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처님 법아래 하나 되는 남북' 이 되길 기원하고 있다.

권양희 기자

전생, 사주팔자, 빙의 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四柱八字)는 빙의(憑依)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전생빙의연구원에서는 강의과정을 대폭 개편하여 금번 13차 전생, 빙의 워크샵을 통해 그 신비스러운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교육내용 본 교육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은 안내자료와 자료 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발송비 5000원)

빙의 치유법	◎ 빙의 진단법 → 확인 → 영가와의 대화 → 영가천도 → 천도확인 → 재접신 방지 치유법 ◎ 악령제압법, 제3자를 통해 빙의된 사람의 영가를 불러 대화를 통한 원격제령 천도법 ◎ 사례 중심의 시청각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
전생요법	◎ 전생과 현생은 천륜보다 질긴 연결고리로서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여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고통의 단서를 찾아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정통 명리학	◎ 사주로 조상 영가, 빙의 보는 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 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 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서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 "군겁쟁재요"..... 전생에 남자를 많이 만난 여자는 이생에서 내 남편 하나 없는 기생, 소실 팔자이니 이런 사주 "관살태왕자요".....
최면학	◎ 최면학 총론, 최면의 원리와 이해, 자기최면, 타인최면 유도법, 최면 명상법 등

빙의(憑依)란? 흔히 귀신들림으로 말해지며 영혼이나 강력한 힘, 절대적 신의 힘이 사람에게 침투하여 삶의 전반이나 특정 증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조정할 수 없다", "누군가 내 머리 속에서 뭐라 얘기하는 것 같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데 세계 보건기구(WHO)국제 질병 분류에는 이를 포제션(Possession)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빙의장애현상 빙의된 사람의 경우 제3의 영적 지배 내지 간섭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의 심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행동, 괴벽, 정서불안,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환청이나 환각, 악몽, 가위눌림 등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빙의 영가의 생전시 질병이나 사고 부위에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한 원인 모를 불임시에도 낙태 영가를 의심해봐야 한다.

정통 명리학 30여년 동안 많은 역학자를 배출한 고은(高恩) 이화정 선생 직접 강의!!

故 이석영 선생의 사주첩경을 바탕으로 "생극제화"의 원리를 아주 쉽게 지도하여 초보자라도 명쾌하게 상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교육과정 및 일정 각 과정별 교재 및 실습 테잎 제공

과 정 명	교육비	교육시간
빙의치유•명리학 과정	100만원	총 48시간
전생•빙의•명리학 과정	200만원	총 63시간
♣10월 6일 개강 (매주 수요일 오전10시~오후8시까지) 7회 과정		

大野 임 재 형 상담학 박사
한국생활최면실천학회 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한국교육최면학회 부회장
SBS백만불 미스터리, Vi세상 속으로, iTV,CMB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주최 : 한국 전생·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 최면 아카데미 WWW.HYPNOS114.COM

• 전 화 : (042) 255-0734~5
• 장 소 : 대전시민회관후문 청운빌딩 (2층 본원 강의실)
대전역에서 택시로 5분거리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특 전] 이수증 수여
[수강신청] 전화 접수 및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출장강의 가능)
[기타문의] 초청 강연 및 개인문제 상담 별도 문의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의식개발원)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 지원)